

## 노동조합의 정보 이용하기

첫 번째 마당, 문제의 제기

유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현** 대사회를 두고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다가오는 21 세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덧붙여 정보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또한 전쟁학이나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현대전은 정보전이며, 누가 정확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중 유용한 것을 선별하고, 성과를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분석한다. '지식정보사회', '과학기술혁명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즘에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위기', '국가경쟁력강화', 'GNP 1만불시대', '내각제개헌',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준' 같은 신문방송에서 흔히 접하는 말

들도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가 있을 때에만 그 실체와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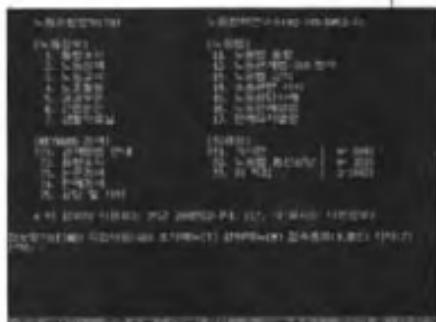
### 노동조합의 정보취득 수단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정보를 취득하고, 선별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회의가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의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로 불릴 정도로 각종 회의도 많고 사회 볼 일도 많다. 어쨌든 회의는 노동조합이 주요 정보를 얻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가려내고, 조합원들과 이웃노조, 혹은 상급단체에 화합하고 공유하는 가장 보편화된 수단이다.

다음으로는 우편, 전화, 팩스를 들

수 있다. 사실 우편과 전화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 6,606개(1995년 12월 기준) 가운데 전화없는 노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노조 전임자 11,041명(상근 6,727명, 반상근 4,314명; 1995년 6월말기준) 가운데 우편과 전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팩스는 사정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노동조합에 이리저러한 일로 연락을 취하다보면 팩스가 없는 노동조합이 의외로 많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 전체 노조의 63%인 4,163개(1995년 12월말 기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 노동조합이 팩스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보 취득·선팔·가공·유포의 유력한 수단으로 컴퓨터를 들 수 있다. 컴퓨터는 전화만큼은 안되도 팩스보다는 보편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노조의 경우 팩스나 심지어 전화보다도 컴퓨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되었



위로부터  
노동조합정보(노동정책연구소),  
메일노동뉴스(한국노동정책포럼),  
노동전선망(LabourNet)

듯이 우편, 전화, 팩스는 노동조합이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조금만 돈을 들여 장치를 하면, 컴퓨터 한 대로 팩스나 통신 등의 몇 가지 기능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컴퓨터를 워드 프로세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가 웬지 낯설고 부담스러워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몇몇 경우에는 그나마 있는 기능도 사용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신문방송을 들 수 있다. 사실 현대인은 신문방송이 쏟아내는 정보의 흥수 속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는 것과 정보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터. 사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잊고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취득 · 선별 · 가공 · 처리

정보의 취득 · 선별 · 가공 · 처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오늘날에 있어 노동조합이 비교적 쉽고 저렴

하고 간편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앞의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화, 팩스, 신문방송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 단소크(Marie Dancsok)라는 사람이 전세계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관련 연구소들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노동전산망(LabourNet)에 올린 '노동조합운동과 인터넷'이라는 논문을 보면, 유럽과 북미의 노조가 정보의 취득 및 활용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다. 설문응답을 받은 22개의 노조 가운데 통신수단으로 컴퓨터를 자주 이용하는 노조는 3곳에 불과했고, 10곳의 노조는 간혹 이용하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 노조도 5곳이나 되었고, 심지어 1곳은 컴퓨터가 통신수단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볼 때, 사회가 선진화되어 있고, 노조가 산업별 혹은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그 조직 규모나 재정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한 서구의 노동조합도 여전히 컴퓨터의 이용에는 서툴고 낯선 것 같다.

## 컴퓨터통신의 노동정보

연구소로 어떤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많이 온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우선 천리안이나 하이텔 혹은 나우누리같은 컴퓨터 통신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고, 가입되어 있으면 통신에 접속한 다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매일노동뉴스로부터 많이 알려져 있다) 혹은 노동정책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해당 자료를 얻으라고 답변한다. 잘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물쭈물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연구소에서 찾아주면 안되느냐는 사람도 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정보의 취득과 활용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컴퓨터 통신망에서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칼세상 접속후 GO MNEWS)나 노동정책연구소(천리안 접속후 GO TU)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단위노조 차원에서 자료집 정도는 너끈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통신을 자주 이용하지만 노동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방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좋은 기회를 놓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더 많은 정보를 노동조합으로

지금까지 많은 잡지와 회보에 컴퓨터에 관한 글들이 실렸다. 노동조합운동과 관련된 잡지들에도 컴퓨터의 활용, 특히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관한 글들이 실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이 얼마만큼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우선 꾸준히 연재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란은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매체, 방법, 수단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소는 꾸준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란을 꾸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호부터 컴퓨터 통신에서 제공되는 노동정보는 무엇이 있고, 비단 노동 문제외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